

의복구매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과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관한 이론적 연구

원 명 심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in Purchasing Apparel as a Function of Individual Learning Styles

Myung Sim Won

Dept. of Apparel Design, College of Art, Kon-Kuk University
(1991. 12. 10 접수)

Abstract

As a preliminary work for the inter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learning style and their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in purchasing apparel, its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reviewed.

Several major approaches to measuring and characterizing learning styles were theories of Hunt, Schroder, Kolb, and Sproules.

Relevant literature suggests several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including Morchis' and Sproules'. Researches on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eoretical learning styles model in the area of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were also explored.

I. 서 론

개인의 가치관과 성격 그리고 지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요소는 개인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기 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면이 더 많다. 특히 개인의 성격은 개인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learning)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와 같이 형성된 성격은 지각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태도와 행동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은 성격 및 지각과 더불어 개인의 행동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 또한 학습에 기초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학습은 학교의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서의 행동을 지침하는 것으로 학생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중, 고등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활양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과 이에 따른 학습스타일은 최근 교복 자율화 이후 다양해진 의복의 구매시 이들의 의사결정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학습스타일(learning style)과, 소비자의 의사결정 스타일(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과의 관계를 규명해보려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으므로 본 논제를 택하였다.

본 논문은 의복구매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과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스타일 연구에서 밝혀진 학습스타일

유형과 교수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소비자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의사결정 스타일과 개인의 학습 스타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학 습

1) 학습의 개념

Hergenhahn²⁾에 의하면 학습은 일시적인 신체의 상태 즉, 질병, 피로, 약물복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변화 혹은 행동가능성을 말한다.

Gibson등³⁾은 학습을 개인행동 형성의 근본적인 과정으로서 반복적인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변화로 보았다. 또한 이군현⁴⁾ 역시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인간의 변화로 보았으며 그 변화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것일수도 있고 또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단순한 자연적 성숙이나 성장과 같은 변화는 진정한 학습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질병, 피로, 굶주림 등에 기인한 일시적 변화 또한 학습의 일반적 정의에서 배제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학습은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변화 또는 행동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Swanda⁵⁾는 구체적으로 학습의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행동변화(behavioral change)

학습의 첫째 요소는 행동의 변화이다. 행동변화는 행동형성의 요인인 성격과 지각, 그리고 동기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학습은 흔히 행동의 개선과 효율적 성과를 상징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학습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만을 포함하지 않고 나쁜 습관과 편견, 현혹적 효과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영구적 변화(permanent change)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비교적 영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학습의 두번째 요소이다. 따라서 환경 조건에 따라 개인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적응행동은 그때

당시에는 행동상의 변화로 보인다 하더라도 영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연습과 경험(practice and experience)

학습은 개인의 자연적인 성숙이나 임시적인 조작행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신체적 발육이나 본능적 행동은 자연적인 과정이므로, 학습효과는 이와같은 자연발생적 행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피로나 습관 그리고 약물의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도 학습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학습은 이와같은 자연적인 행동변화나 일시적 조작에 의한 행동변화가 아니라 실제연습과 실습 그리고 실제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2) 학습원리(theories of learning)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극-반응이론(stimulus-response theory)과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을 들 수 있다. 자극-반응이론은 학습을 어떠한 자극으로부터 행동을 유도해 내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보고, 자극과 반응을 중심으로 행동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 반면에 인지이론은 학습을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기대와의 복합적인 관계로 보고, 자극과 반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 목적, 기대감 등도 포함하여 개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학습의 자극-반응이론으로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조작적) 조건화를 들 수 있고 인지이론으로 사회적 학습을 들 수 있다⁶⁾.

(1)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1920년대 러시아 생리학자 Ivan P. Pavlov는 소화 분비액에 관한 실험중에 원래는 반응을 유발시킬 수 없는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였다⁷⁾.

파블로프의 유명한 개실험에서 개는 고기(무조건자극, unconditioned stimulus)를 보고 반사적인 행동으로 타액(무조건 반응, unconditioned response)을 분비하게 된다. 그러나 고기를 줄 때마다 종(조건자극, conditioned stimulus)을 울리면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타액을 분비하게 된다. 여기서 고기를 보고 타액을 분비하는 것은 무조건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고, 종소리에 의하여 타액을 분비하는 것은 학습을 통한 조건자극에 대한 조건반응이다. 즉, 고기라는 무조건자극과 타액 분비라는 무조건반응에 아무관계가 없는 종이라는 조건자극을 통하여, 타액분비라는 무조건반응을 학습을 통

하여 조건반응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무조건자극(고기)을 조건자극(종소리)과 짝지워서 학습에 의한 행동(타액분비)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부른다.

이와같은 고전적 조건화는 학습이론에 많은 공헌을 했고 학습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학습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학습이론을 발전시켰다. 파블로프와 같이 행태이론의 선구자인 왓슨(J. Watson)은 학습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보상(reward)을 강조하였다. 즉 자극-반응에 있어서 반응행동은 이에 따른 보상이 수반됨으로써 그 반응행동이 반복될 수 있고, 따라서 보상을 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반응행동만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극-반응의 빈도(frequency)와 반응행동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⁹⁾.

(2)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Thorndike와 Skinner는 작동적(조작적) 조건형성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Edward Thorndike (1913)의 초기 작업은 고양이로 상자에 넣어 실험하는 것이었다. 상자로부터 나와서 밖의 먹이에 도달하기 위해 고양이들은 자물쇠를 밀어내거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행하게 된다. 그들은 상황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상자가 닫힌 후에 한동안 광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들은 결국 우연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여러번 반복된 뒤에 그 고양이들은 거의가 즉각적으로 정확한 반응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실험에 바탕을 두고 Thorndike는 학습의 중요한 법칙의 하나로 효과의 법칙(low of effect)을 주장하였다. 이 효과의 법칙은 어떤 하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동작은 그런 상황하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물쇠를 밀어내는 동작이 만족(먹이로의 접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다시 상자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동작(자물쇠를 밀는 동작)은 되풀이 되었다. 따라서 Thorndike는 조작적 조건형성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은 B.F. Skinner에 의하여 발전되고 완성되었다. Skinner는 고전적 조건형성의 원리는 학습행동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설명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 고전적 조건형성은 현재의 행동이 어떻게 새로운 자극과 짝지워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지만 그러나

새로운 행동이 어떻게 획득되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행동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인 동작 또는 조작적 행동이다. Skinner에 따르면 이들 조작적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작적 조건형성(혹은 조작적 학습)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있다⁹⁾.

(3) 사회적 학습(인지 학습)

인지론자들은 학습이란 외부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외부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정신도구를 마음대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믿음, 기대, 감정은 물론 제반상황에 대한 사고방식은 학습하는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적 관점은 인간을 활동적인 정보처리 과정자로 본다. 즉, 인간은 학습으로 연결되는 여러가지 경험을 직접 주도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추구하며, 새로운 학습을 성취하기 위해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재조직한다. 또한 여러가지 정해진 목표를 추구하고자 할때 환경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의지에 의해 선택하고, 실행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중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반응들을 나타낸다¹⁰⁾.

인지심리학자인 Gagné는 8가지 유형의 학습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지적 능력에 속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가) 신호학습(signal learning), (나) 자극반응학습(stimulus-response learning), (다) 연쇄학습(chaining), (라) 언어학습(verbal association learning), (마) 변별 학습(multiple discrimination learning), (바) 개념학습(concept learning), (사) 법칙학습(principle learning), (아) 문제해결학습(problem solving)의 8가지 학습이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위계가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차례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¹¹⁾.

2. 학습스타일(learning style)

Hensen¹²⁾에 의하면 교수방법(teaching methodology)이론은 학문의 성격상 학습에 대한 이해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교수 방법과 학습과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내준다 하겠다.

Joyce¹³⁾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4가지의 교수방법이론 및 대표적 이론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사회상호작용 모델(social interaction model)

이 모델은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및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증진에 우선권을 둔다. 사회 상호작용 모델의 대표적 이론가들로는 Hebert Thelen, John Dewey, Byron Masialas, Benjamin Cox, Donald Oliver, James P. Shaver, Fannie Shaftel, George Shaftel, Sarene Boocock등을 들 수 있다.

(2) 정보처리 모델(information-processing model)

정보처리는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처리, 데이터 조직, 문제의 감지, 개념의 확립과 문제해결 및 언어와 비언어적 상징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정보처리 능력 및 정보를 마스터 하는 능력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므로 생산적인 사고가 강조되며 때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정보처리 모델의 대표적 이론가들로는 Hilda Taba, Richard Suchman, Joseph J. Schwab, Jerome Bruner, Jean Piaget, Irving Sigel, Edmund Sullivan, David Ausubel, Jerry Lucas등을 들 수 있다.

(3) 인본주의적 모델(personal model)

이 모델은 개인이 그들의 독특한 실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종종 개인의 감정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인본주의적 모델의 대표적 이론가들로는 Carl Rogers, Fritz Perls, William Schutz, William Gordon, David Hunt, Willam Glasser등을 들 수 있다.

(4) 행동수정과 인공두뇌학 모델(behavior modification and cybernetic models)

이 모델은 학습순서와 강화(reinforcement)를 조합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개발하려는 시도로부터 발전하였다. 내재하고 관찰할 수 없는 행위보다 학습자의 관찰할 수 있는 행위를 변경시키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행동수정모델의 대표적 이론가들로는 B.F. Skinner, Wolpe Rinn, Guetzkow Link, Lumsdaine등을 들 수 있다.

Joyce는 위의 네가지 교수방법 모델들이 비록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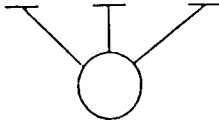
인 교수법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위의 네 부분 모두에서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방법 이론들과 학습자들의 특성 또는 스타일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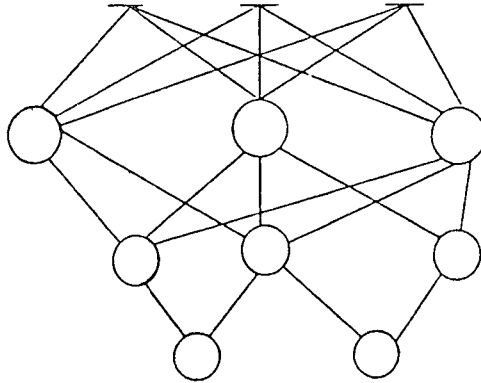
1) Piaget의 영향을 받은 Kohlberg는 도덕 발전 분야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교사에 의해 사용되는 교수방법과 학습자의 발전 단계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¹⁴⁾.

2) David Hunt는 개념체계 이론(conceptual systems theory)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인간 발달을 사람, 사물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상당히 복잡한 체계로 보고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이 점점 복잡적으로 될수록 성장이 최적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환경이 그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관점은 인간이 개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환경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므로 교수 전략(teaching strategy)을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교수전략이 학습자의 개념단계와 잘 맞을수록 학습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체계이론은 학습자 정보처리체계의 인지적 복잡성에 중점을 둔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에 따라 개념단계의 구조(the construct of conceptual level)가 다르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비교적 몇 안되는 차원(dimension)으로 보며 그 차원들은 서로 잘 통합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다 차원으로 보고 그 차원들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단계의 통합적 복잡성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을 환경과 관련해 사용하는 차원들의 수와 그들 차원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분류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중의 개인 A는 3개의 차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차원으로 줄이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개인 B는 A와 마찬가지로 3개의 차원을 이용하지만 그가 받은 데이터를 복합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개인 A는 그 자신과 상충되는 의견들에 대해 그 자신의 것으로 합병하거나 완전히 거부해 버리는 흑백의 논리를 가진 경향이 많고 개인 B는 의견을 분류하여 그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들과 균형을 취하고 아마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A. 저통합형 (low integration index)



B. 고통합형 (high integration index)



(그림 1) 개념구조단계

자료원 : Schroder, Driver, and Streufert,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1967 by Holt, Rinehart, and Wisnton in Joyce, B.R., Learning How to Learn, Theory into Practice, 19(1), 20, (1980)

도 하고 부분적으로 거부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기도 하는 사람을 말한다¹⁵⁾.

3) Schroder, Driver와 Streufert는 '개념체계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을 네 유형 즉 (1) low complexity (2) moderate complexity (3) moderately high complexity (4) high complexity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이들에 의하면 개인을 복잡성과 유연성의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가장 좋은 과정은 학습 환경을 현재의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추지만 그 방법은 개인을 다음의 발달단계로 끌어올리도록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¹⁶⁾.

4) Kolb¹⁷⁾는 학습을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순환과정으로 보았다.

- (1) 학습은 어떤 확실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 (2) 개인은 이와같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관찰을 한다.
- (3) 학습자는 추상적인 일반론을 발전시킨다.
- (4) 이러한 일반론은 시험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변경되어진다.

위와같은 4단계의 학습과정에서 기초를 두고 Kolb는 4가지 학습양식의 가정을 제안하였다. 이 양식은 개인의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학습 양식을 의미한다.

가) 확실한 경험(concrete experience <CE>)으로의 경향

· 이 양식은 경험을 중시하여 감정을 중시하며 현실의 독특함과 복잡성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시 체계적이

고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직관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숙고하는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RO>)으로의 경향

· 이 양식은 생각의 의미와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묘사함으로써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다)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으로의 경향

· 이 양식은 분석력과 사고력에 중점을 두며 직관보다는 과학적으로 개념을 이론화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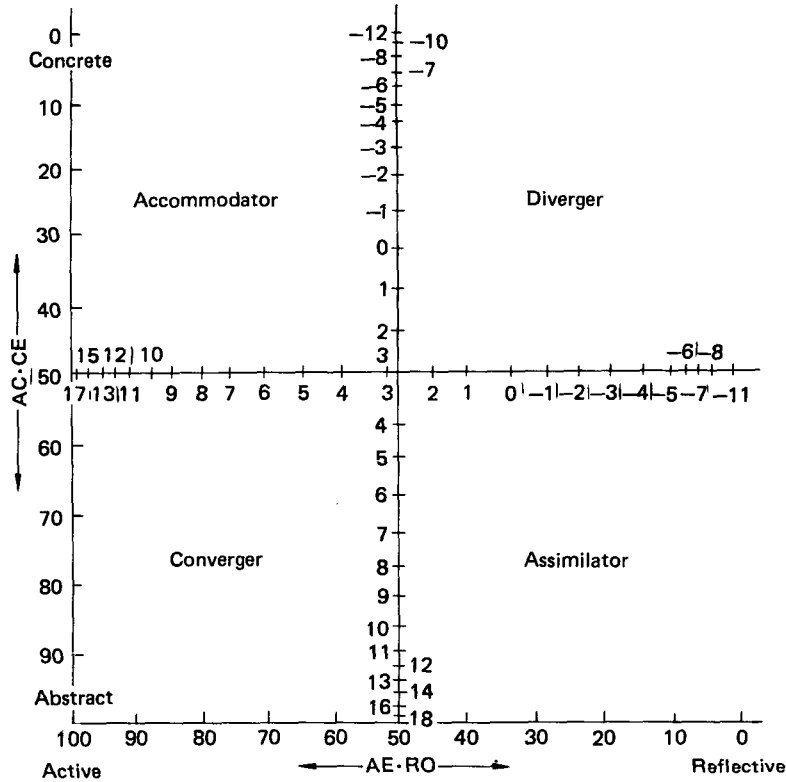
라) 적극적인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AE>)으로의 경향

· 이 양식은 생각 또는 이론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Kolb¹⁸⁾는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은 위와같은 기본적인 학습양식들중 어느 하나가 아닌, 양식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론 및 실질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조합양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림 2)와 같다.

가) 집중 학습 스타일(the convergent learning style)

· 추상적 개념화(AC)와 적극적인 실험(AE)의 조합양



(그림 2) 학습자 스타일

자료원 : Kolb, David A., Rubin, Irwin M., and McIntyre, James, M., Organization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36, (1984).

식으로 강점은 문제해결, 의식결정 및 생각의 실제 적용에 있다. 이 스타일의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추리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문제에 집중을 잘하고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일보다는 기계적인 일이나 문제를 다루기를 좋아한다.

나) 분기 학습 스타일(the divergent leaning style)
 • 확실한 경험(CE)과 숙고하는 관찰(RO)의 조합양식으로 강점은 상상력과 의미와 가치를 앎에 있다. 이 스타일의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적이며 폭넓은 문화적 관심을 갖고 예술적인 경향이 있다.

다) 동화 학습 스타일(the assimilation learning style)

• 추상적 개념화(AC)와 숙고하는 관찰(RO)의 조합양식으로 강점은 귀납적 추리, 이론적 모델의 창출 및 다양한 관찰을 통합된 설명으로 동화 또는 흡수하는데 있다. 이 스타일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정확한가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 적응 학습 스타일(the accommodative learning style)

• 확실한 경험(CE)과 적극적인 실험(AE)의 조합양식으로 강점은 계획과 업무를 실행하고 새로운 경험에 관여하는데 있다. 이 스타일의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적응하며 직관적인 시행착오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분석력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5) Sproles¹⁹⁾는 Kolb의 학습스타일에 기초하여 중등 학교 수준의 교육수준 혹은 나이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중등 학습 스타일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다음 같이 6가지의 학습자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1) 진지한 분석자적 학습자(serious, analytical learner)

· 진지하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자료를 통하여 생각하기를 즐기는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2) 능동적, 실질적 학습자(active, practical learner)

· 경험을 중시하고 실질적인 학습행위에 의해 배우는 것을 즐기는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3) 관찰 중심 학습자(observation-centered learner)

· 먼저 본 다음에 학습경험을 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4) 수동적, 수용적 학습자(passive, accepting learner)

·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고 보고 들은 것을 숙고하는 조용하고 기본적으로 비참여적인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5) 확실, 세부중심적, 사실주의적 학습자(concrete, detailed, fact-oriented learner)

· 학습경험중 세세한 세부사항을 즐기는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6) 비수용적, 고투적 학습자(nonadaptive, struggling learner)

· 학습을 불확실하게 느끼고 어려운 경험으로 지각하는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Hunt와 Schroeder 등은 학습자 정보처리 체계의 인지적 복잡성에 중점을 둔 개념체계이론으로 학습 스타일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관념적인 것으로 피상적이다. 반면에 Kolb와 Sproles의 학습 스타일은 실증적 연구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Kolb의 학습 스타일 분류는 내용에 있어 성인 혹은 대학졸업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Sproles의 학습 스타일 분류는 Kolb의 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 수준을 쉽게 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자들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졸업의 학력수준 혹은 나이 어린 사람들도 분류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중, 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일반대 중을 대상으로한 학습 스타일 분류는 Sproles의 분류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의복구매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consumer decision-making style in purchasing apparel)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이란 소비선택을 할때 소비자

의 접근 방법을 특정지을수 있는 심적 경향을 의미한다²⁰⁾.

소비자 의사결정은 의류분야에 있어 의복구매행동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춘계²¹⁾는 도시남편의 의복구매행동에 있어 부인이 관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김애련 등²²⁾은 서울시내 여고생의 의복구매행위와 가정의 경제수준과의 관련성 및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고 홍혜정²³⁾도 여고생을 대상으로 의복구매행동 영향요인을 구매시기와 방법, 구매처 위치와 선정동기, 준거집단의 영향 및 정보매체와 제품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송미령²⁴⁾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구매 행동을 구매 계획, 구매시 논의자, 구매처, 대금지불방법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구매행동을 여러측면에서 분석하였지만 구매자유형 혹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스타일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다. 구매자유형에 관한 연구로 김영인²⁵⁾은 선호 디자인 감각에 따라 의복 구매자유형을 (1) 활동적 감각 선호형 (2) 남성적 감각 선호형 (3) 우아한 감각 선호형 (4) 여성적 감각 선호형으로 나누었으며 의복구매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디자인 감각 기준 이외의 의복행동 및 생활양식을 고려한 종합적 기준을 토대로한 효과적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의 연구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보면, Morchis²⁶⁾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구매행동에 따라 (1) 특별세일소비자(special sales shoppers), (2) 상표충성적 소비자(brand loyal shoppers), (3) 점포충성적 소비자(store loyal shoppers), (4) 문제해결적 소비자(problem solving shoppers), (5) 사교적 소비자(socializing shoppers), (6) 명성의식적 소비자(name conscious shoppers) 등 여섯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제품류 예를들어, 의류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orchis에 의하면 상표충성적 소비자와 명성의식적 소비자들은 광고를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하며, 사교적 소비자들은 주로 친구나 이웃에서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에 반해 문제해결적 소비자는 TV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특별세일 소비자는 특히 무상견본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객관적인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추구한다고 한다.

Sproles²⁷⁾는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였다.

(1) 완벽, 고품질 중시 소비자(perfectionistic, high-

quality conscious consumer)

- 제품에 있어 주의 깊게 체계적으로 고품질을 찾는 소비자

(2) 상표중시, 가격과 품질 동일시 소비자(brand-conscious, price-equals-quality consumer)

- 비싸고 잘 알려진 내셔널 상표를 사는 소비자

(3) 신기함, 패션중시 소비자(novelty and fashion conscious consumer)

-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찾음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

(4) 오락, 쇼핑 중시 소비자(recreational and shopping-conscious consumer)

- 쇼핑을 즐거운 행위로 생각하고 쇼핑 그 자체를 즐기는 소비자

(5) 가격중시, 돈에 대한 가치 중시 소비자(price-conscious, value-for-money consumer)

- 특히 세일 가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

(6) 충동적, 부주의한 소비자(impulsive, careless consumer)

- 순간의 행동으로 구매하고 얼마를 썼는지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소비자

(7) 과선택에 의해 혼돈된 소비자(confused by over-choice consumer)

- 선택해야될 상표와 점포가 너무 많다고 느끼고 시장에 정보가 초과 적재되어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

(8) 습관적, 상표충성 소비자(habitual, brand-loyal consumer)

- 반복적으로 선호하는 같은 상표와 점포를 선택하는 소비자

이와같이 국내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의복 구매행동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지만 소비자들 의사결정 스타일 별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다.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Morchis와 Sproles의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Sproles의 분류가 Morchis의 분류보다 세분화 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 모두 의복구매시의 소비자 유형 분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학습 스타일과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

Stabell²⁸⁾은 Kolb의 학습 스타일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은행의 관리자들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의 학습스타일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의 성격상 모험이 따르고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받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일수록 적극적이고 실험적인(AE) 학습능력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며 숙고적이고 관찰하는(RO) 학습능력을 피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abell의 연구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스타일과 학습스타일의 관련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습스타일과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Sproles²⁹⁾를 들 수 있다. Sproles는 Kolb의 학습스타일에 기초하여 그 자신이 개발한 중등학습 스타일문항(secondary learning styles inventory)과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 문항(consumer decision making styles inventory)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⁹⁾.

(1) 완벽, 고품질 중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은 능동적이고 진지한 학습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기함, 패션중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의 학습 스타일은 완벽, 고품질 중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차이점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나타났다.

(3) 오락, 쇼핑중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은 진지하고 확실한 학습자 스타일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격중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은 여러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충동적, 과선택에 의해 혼돈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들은 비수용적, 고투적 학습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상표 중시, 상표 충성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들은 진지하고 분석적인 학습자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Sproles의 연구는 비록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과 개인의 학습스타일 사이에 원인-결과적인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탐구적 연구에서는 두 스타일 간의 관련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III. 결 론

이상과 같이 학습의 원리, 학습스타일과 교수방법, 소

비자 의사 결정 스타일,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과 개인의 학습 스타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wanda는 학습의 주요 요소를 행동변화, 영구적 변화, 연습과 경험으로 보았다.

(2) 학습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대표적인 이론으로 1920년대 러시아 생리학자 Ivan P. Pavlov에 의해 발전된 고전적 조건화이론, Thorndike와 Skinner로 대표되는 작동적(조작적) 조건화이론, Gagné의 인지학습조건 이론을 들 수 있다.

(3) Joyce는 주요한 4가지의 교수 방법이론으로 (가)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한 사회 상호작용 모델, (나) 인간이 환경으로 자극을 처리, 데이터 조직, 문제의 감지, 개념의 확립과 문제 해결 및 언어와 비언어적 상징을 사용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 정보 처리 모델, (다) 개인이 그들의 독특한 실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증시하는 인본주의적 모델, (라) 학습 순서와 강화를 조작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개발하려는 시도로부터 발전한 행동수정 과정 인공 두뇌학 모델을 들고 위의 4가지 교수 방법 모델들이 비록 특징적인 교수법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위의 네부분 모두에서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4) 학습스타일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Piaget의 영향을 받은 Kohlberg는 도덕 발전분야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교사에 의해 사용되는 교수 방법과 학습자의 발전단계들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 Hunt는 학습자 정보처리 체계의 인지적 복잡성에 중점을 둔 개념 체계 이론을 발전 시켰다.

(다) Schroder, Driver, Streufert는 개인을 네유형 즉 low complexity, moderate complexity, moderately high complexity, high complexity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라) Kolb는 이론 및 실질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 스타일을 집중 학습 스타일(the convergent learning style), 분기 학습스타일(the divergent learning style), 동화 학습 스타일(the assimilation learning style), 적응 학습스타일(the accommodative learning style)로 분류하였다.

(마) Sproles는 Kolb의 학습스타일에 기초하여 중등 학교 수준의 교육수준 혹은 나이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중등 학습 스타일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6가지의 학습자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즉, 진지한 분석자적 학습자(serious analytical learner), 능동적, 실질적 학습자(active, practical learner), 관찰 중심 학습자(observation-centered learner), 수동적, 수용적 학습자(passive, accepting learner), 확실, 세부 중심적, 사실주의적 학습자(concrete, detailed, fact-oriented learner), 비수용적, 고투적 학습자(nonadaptive, struggling learner)로 분류하였다.

(5)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인은 선호 디자인 감각에 따라 의복 구매자 유형을 활동적 감각 선호형, 남성적 감각 선호형, 우아한 감각 선호형, 여성적 감각 선호형으로 나누었다.

Morchis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구매행동에 따라 특별세일 소비자, 상표 충성적 소비자, 점포 충성적 소비자, 문제해결적 소비자, 사교적 소비자, 명성의식적 소비자의 여섯 부류로 구분하였고 Sproles는 소비자 의사 결정 스타일을 (가) 완벽, 고품질 중시 소비자, (나) 상표중시, 가격과 품질 동일시 소비자, (다) 신기함, 패션중시 소비자, (라) 오락, 쇼핑 중시 소비자, (마) 가격중시, 돈에 대한 가치 중시 소비자, (바)충동적, 부주의한 소비자, (사) 과선택에 의해 혼돈된 소비자, (아) 습관적, 상표충성 소비자의 8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6) 학습스타일과 의사결정 스타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Stabell과 Sproles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Stabell은 Kolb의 학습스타일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대상은 은행의 관리자들이었으며 연구결과 개인의 학습스타일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roles는 Kolb의 학습 스타일에 기초하여 그 자신이 개발한 중등 학습 스타일 문항과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 문항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두 스타일 사이에 원인-결과적인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탐구적 연구에서는 두 스타일간의 관련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같이 학습스타일과 소비자 의사 결정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두 스타일간에 관련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

만 아직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겠다.

국내 소비자들의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후속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 학습 스타일 문항으로는 대학졸업학력의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Kolb의 학습 스타일 분류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청소년이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Sproles의 학습 스타일 분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 스타일 분류로는 Morchis와 Sproles의 분류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세분화된 Sproles의 분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적용시에는 문항의 수정, 보완 및 타당성,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진 후 적용하여 두 스타일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되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학중, 조직행동론, 세경사, 121, (1991)
- 2) Hegenhahn, B.R.,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Learning,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2, (1988)
- 3) Gibson, J.L., Ivancevich, J.M., and Donnelly, J.H.,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Plano, Texas: Business Publications, Inc., 63-64, (1982)
- 4) 이군현, 교육심리학, 박영사, 168, (1990)
- 5) Swanda, J., Organizational Behavior, Scherman Oaks, California: Alfred Publishing Company, Inc., 110-111, (1979)
- 6) 이학중, 조직행동론, 122-123
- 7) 이군현, 교육심리학, 172
- 8) 이학중, 조직행동론, 123-126
- 9) 이군현, 교육심리학, 178-180
- 10) *Ibid.*, 200
- 11) Arnone, V.C., The Nature of Concepts: A Point of View, *Theory into Practice*, 10(2), 101-108, (1971)
- 12) Henson, K.T., Instruction and Learning: Then and Now, *Theory into Practice: Special 25th Anniversary Issue*, 400, (1987)
- 13) Joyce, B.R., Learning How to Learn, *Theory into Practice*, 19(1), 15-18, (1980)
- 14) *Ibid.*, 19
- 15) *Ibid.*, 19-20
- 16) *Ibid.*, 21-22
- 17) Kolb, D.A., Rubin, I.M., and McIntyre, J.M., Organization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25-50, (1984)
- 18) *Ibid.*
- 19) Sproles, E.K., and Sproles, G.B.,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as a Function of Individual Learning Styl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4(1), 136, (1990)
- 20) Kendall, E.L., and Sproles, G.B., Learning Styles of Secondary Vocational Home Economics Students: A Factor Analytic Test of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1(3), 1-15, 1986
- 21) 이춘계, 한국도시남편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4(1), 11-18, (1980)
- 22) 김애련, 김진구, 가정의 경제수준과 여고생의 의복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0(1), 9-17, (1986)
- 23) 홍혜정, 여고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실업계와 인문계 여고생의 구매행동차이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24) 송미령,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I) - 서울, 부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2(1), 53-68, (1988)
- 25) 김영인, 선호디자인 감각에 따른 의복구매자 유형과 관련된 생활 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 (II) - 의복구매자 유형과 스타일 선호 및 구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3(4), 412-426, (1989)
- 26) Morchis, G.P., Shopping Orientations and Consumer Uses of Information, *Journal of Retailing*, 52, 61-70, (1976)
- 27) Sproles, E.K., and Sproles, G.B.,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as a Function of Individual Learning Styles, 137
- 28) Stabell, C., "The Impact of a Conventional Computer System on Human Problem-Solving Behavior", Unpublished Working Paper, Sloan School of Managemen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3 in Kolb, D.A., Rubin, I.M., and McIntyre, J. M., Organization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39-40, (1984)
- 29) Sproles, E.K., and Sproles, G.B.,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as a Function of Individual Learning Styles, 134-147